

무주 야산에 경비행기 추락 '아찔'

적상면 삼유리 봉화산 부근 무진장소방서, 탑승자 구조

무주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36분 경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봉화산 7부 능선 부근에서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비행기에는 탑승자 3명(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및 학생)이 울산공항으로 가기 위해 비행 연습 중 기체가 흔들리면서 갑자기 기울어졌다는 말에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한 당시 비행이 운행이 어려워 낙하산을 이용해 탑승자 전원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날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봉화산 부근에서 훈련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환자 3명을 구조했다.

이번 추락 사고는 한국교통대학교 총주 캠퍼스 소속인 이 경비행기는 오전 9시 10분경 청주 비행훈련원에서 이륙해 최종 목적지 울산공항을 가기 위해 비행 연습 중 기체가 흔들리면서 추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봉화산 부근에 추락한 경비행기 모습.

락해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 15명이 출동해 환자 3명을 구조 후 현장 안전조치를 했다.

추락 당시 경비행기는 교수 주00(남/28), 학생 윤00(23/남), 학생 이00(남/22)씨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자체 낙하산이 퍼지면서 충격을 완화하여 다행히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는 환자 주00(남/28) 등 2명

을 응급처치 후 경미한 찰과상으로 119구급대와 같이 하산해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조용주 서장은 "비행기 사고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확률이 매우 낮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전사고 대비수칙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로 떠나는 감성충만 여행'

장수교육지원청, 교원 40명 대상 실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찬)은 지난 19일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최적지로 장수를 소개하는 '풍요로운 고장 장수로 떠나는 감성충만 여행'을 실시했다.

현장체험학습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행사는 "새롭게 떠오르는 철의 왕국 장수기야의 유적지 장계면 삼봉리 고분 관광, 말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경기 규모로 건축된 장수승마장에서 승마체험, 장수고원에서 거문 명품 장수사과 따기 체험,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방화동 휴양림을 둘러보았다.

장수를 대표하는 장수한우, 장수사과, 장수삼마, 장수자연음 모티브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을

행 참가자들은 청정지역 장수를 꼭 다시 와 보고 싶고, 학생들과 함께 꼭 장계면삼봉리 고분 관광, 말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경기 규모로 건축된 장수승마장에서 승마체험, 장수고원에서 거문 명품 장수사과 따기 체험,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방화동 휴양림을 둘러보았다.

김영찬 교육장은 "장수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사과와 한우리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방화동 계곡과 덕산계곡이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철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으며 엄청난 크기의 고분을 200개 이상 축조한 장수가야는 고대왕국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지로 장수를 소개하는 장수 가을 감성충만 여행이 성황리에 끝나게 되어 감사드리고 2017년도에도 더욱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폴리스

완주여성새로일하기기업 여성친화기업 여성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친화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취업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완주군은 여성친화기업인 (주)탑스, (주)새로식품, (주)파인플, 유니레즈(주), (주)프로과외, (주)아시아, 한국프리미엄제(주) 등 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 여성일하기센터에서는 산업체 맞춤형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환경개선자금 지원 및 구인처와 구직자간 채용 연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여성친화기업에 새일여성인턴사원을 지원하며 기업에서 인턴 사원 채용 시 1인당 300만원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290-3881~5)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반딧불농업대학 졸업식

무주군 반딧불 농업대학 졸업식이 21일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졸업생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시상 및 졸업증서 수여, 학과별 기념촬영 등에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과(기초)학과 전희숙 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상을 수상했으며, 버섯과 라래피 씨, 친환경농업과 한은성 씨, 농식품가공 정란화 씨가 반딧불농업대학장이 주는 공로상을 받았다.

또 사과(기초)학과 권중기를 비롯한 12명이 반딧불농업대학 과정을 성실히 마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황정수 군수는 "6차 산업화가 우리 군 농업비전이고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가 우리 미래인 상황에서 반딧불농업대학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배움으로 향했던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 개인은 물론, 무주농업 나아가 무주군 발전을 위한 동력, 나아가 농산물 수입 개방시대를 거뜰히 넘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의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학생 '꿈 잡(Job)는 길' 진행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이유미)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관내 중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꿈 잡(Job)는 길'을 진행했다.

이번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직업 설계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신문기자, 청소년상담사, 슈가크래프트, 창업가(3D 프린팅 이용한 한옥등 만들기), 비누꽃폴리리스트 등 총 5개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새로운 직업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강의의 통해 구체적인 꿈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의식이 향상되고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무주 산골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무주군청 주차장 도로에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군민들의 분노 함성과 촛불을 밝혔다.

무주산골에도 타오르는 촛불은 전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듯 성난 민심의 함성이 밤하늘을 밝혀주듯 울려 퍼졌다.

이날 참가는 안호영 국회의원, 황정수 군수,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 관계자, 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군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무주군 각 사회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등과 함께 무주군민 촛불집회를 주관한 무주군 공무원 노조 이치우 지회장은 "무주군민들의 뜻을 전달할 촛불집회의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게 되었다"며 "비가 많이 내렸지만 준비한 양초 600개가 모두 소진 되었을 정도로 산골



국민 민심이 분노해 있다며 집회가 다 끝나면 뒤에는 참가자 스스로가 집회장소를 깨끗이 정리 정돈을 해 성숙된 군민의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편 무주군민 촛불집회에 참가

한 이영재씨는(무주읍, 44세) "국정농단에 상당한 분노를 느낀다며, 일회성이 아닌 매주 무주군민 촛불집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사랑나눔 먹거리 장터 운영

24일 군청 주차장서

2016 무주 기부 의 날 초대, 사랑나눔 먹거리장터가 오는 24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군청 차 삼터(주차장) 1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겨울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군민들의 사랑을 전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이 주최 ·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용식)가 주관하며 무주지역자활센터와 무주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무주청소년수련관, 무주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하은의 집,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무주 9887 노인복지센터, 햇살 가득한 집에서 후원한다.

나눔 마당에서는 먹거리장터와 기부 물품 판매행사가 펼쳐지며 문화마당에서는 재능기부 공연과 시화전이 개최된다. 또한 성금모금과 구매테이블 등 기부 등의 감동마당, 아나바다 장터와 애장품 기증판매 등이 진행되는 특별 마당도 펼쳐질 예정이다.

재능기부 공연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무주문화원 해피해피 팀

을 비롯한 9개 팀이 무대에 올라 우크렐레와 바이올린, 플루트, 색소폰 등을 연주하며, 댄스와 밴드공연도 펼칠 계획이다.

시화전은 한국작가회의 무주지부에서 "겨울나무처럼" 이봉명 작 등 20점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희망복지 이재덕 담당은 "해마다 사랑 나눔 먹거리 장터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주고 계신다"며 "시간과 노력, 기부와 참여로 마음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로 인해 더 큰 나눔이 양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전력·통신 지중화사업' 진행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무주지사) 및 통신3사와 협업으로 추진한 '국립공원 전력·통신지중화사업'이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어 국립공원 내 자연경관 복원은 물론 산불예방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추진된 덕유산

국립공원 내 '전력·통신 지중화 사업'은 국립공원 진입부인 구천동 마울부터 덕유대 야영장을 거쳐 인월담 탐방로까지 16.5km의 구간에 설치돼 있던 전신주 146개를 제거하고, 전력·통신선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막바지 전신주 철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공공비축미곡 '새누리'·'신동진' 선정

완주군은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새누리'와 '신동진' 2개 품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날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전업농 등 농업인단체, 농협관계자, RCP대표,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열고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결정했다.

'새누리'와 '신동진' 품종은 재배가 용이하고 병충해에 강해 농가선호도가 높아 완주군은 2012년부터 매입품종으로 선정해 5년째 매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곡의 품질 향상 및 쌀 적정생산을 위해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다수 품종 2개(황금누리, 호풍)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토마토 출하·전문농업인 육성

진안군은 21일 지난 7월부터 첨단온실에 정식한 진안고원 토마토를 본격 생산한다고 밝혔다.

첨단온실이란 하우스 높이가 7.4m정도 되는 연동형 비닐하우스로 천창개폐, 보온커튼, 유도팬, 양액기 등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자동 제어하는 하우스를 말한다.

일반 토마토 재배는 5월에 정식하여 10월이면 수확이 끝나는데, 첨단온실 토마토 재배는 7월에 정식 9~10월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가 다음해 6월까지 10개월간 계속 수확을 한다.

군은 2015년부터 4ha 규모로 첨단

토마토온실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수출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NH무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1주일에 3톤 이상을 생산하여 서울 도매시장, 농협 하나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 중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첨단 토마토 온실 재배단지를 20ha 이상 늘릴 예정이며, 젊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설원에 환경제어교육과 전북농업미스타대학 토마토 과정 교육 이수 등을 통해 토마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